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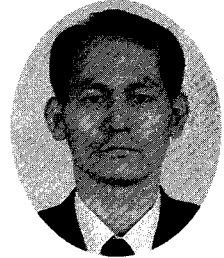
○ 일본의 양계소식



1. 일본의 계란 가격회복에 빨간 불

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가 10월29일 공포한 9월의 병아리 부화수에 의하면 전국에서 출하된 병아리수는 산란계 암 병아리가 939만1천수이고 육계용 병아리가 5천4만6천수였다.

10월 상순에 청취한 3개월 후의 병아리 출하 예상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하여 산란계 암 병아리가 10월, 11월, 12월 모두 100%이었고, 육계용 병아리는 10월 101%, 11월 105%, 12월 99% 정도로 예측하였다. 이것을 근거로 한 2001년 예상 병아리 사육수수는 산란계 암 병아리가 1억1천117만5천수로 전년대비 101.2%이고, 육계용은 6억495만9천수로 전년대비 99.7%이고 산란계 병아리는 3년 연속 증가하는 것이고 육계용은 14년 연속 감소를 보였다. 여기에 1999년 하반기부터 20개월 이상 병아리 사육수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1년 계란 생산량은 사상최고였던 1993년「2,597.7천톤/¥161(농협 중란)」에 필적하는 것으로 예상된다. 일본양계협회의 추정치에 의하면 2001년은 계란 생산량은 연간 260만톤에 가깝고 현재의 병아리 사육수수 신장율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계란 생산량은 금년을 상회하여 계란 가격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. 그러나 계란의 소비동향은 지난 10년 이상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이고 최근의 침체된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아 계란의 소비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찾기란 어려운 상황이다.(자료 : 일본 양계협회)



윤 병 선
한일사료(주) 기술연구소 부소장
농학박사

2. 2001년도 축산부분 산란계 수상자 이치무라(市村 榮宗)씨 소개

1989년 부친으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아 현재 약 11만수를 사육하는 산란계 전문의 양계경영으로 바꾸었다. 경영에서 “계분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여기에 적합한 계사를 설계하고 그 다음으로 닭을 입식하는 계획을 세운다”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환경보전형 양계장을 경영하는 이치무라 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.

- ① 스스로 시설·기계에 관한 작은 부분까지 개선·개량하여 닭에게 스트레스가 적은 사양관리가 되도록 배려함
- ② 전 계사를 무창계사로 하여 계사 내 악취, 닭 우는 소리, 깃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대형 오존 탈취장치를 도입하여 거의 완전해 가까운 악취 대책을 실시
- ③ 농장내 다수의 꽃을 심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음
- ④ 무창계사의 독자적인 구조 및 기술에 의하여 내수성을 높이고 노계출하 후 물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는 고도의 위생환경수준 유지
- ⑤ 질병대책으로 1수당 일반적인 경비보다 2배에 가까운 철저한 백신 실시
- ⑥ 자동 계란 수집장치를 개조하여 파란율을 낮추고 난각표면의 세균침입방지 및 상품화 향상
- ⑦ 일일산란량: 49.8g/수, 사료요구율: 1.98, 계란생산비: ¥103.9/Kg, 연간소득: ¥71,842, 소득율: 19.3%로 우수한 경영.(자료 : 일본 양계협회)

※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(031-280-4046)